

‘격리 없이 여행’… 트래블버블 기대에 은행 외화 상품 봇물

일반은행 외화예수금 전년비 증가
신한銀, 추첨 통해 여행상품권 증정
광주銀, 주요통화 환전시 환율 우대

〈은행 외화 예수금 추이〉

| | 2018년 3월 | 2019년 3월 | 2020년 3월 | 2021년 3월 |
|-------------------|----------|----------|----------|-----------|
| 시중은행 | 695,147 | 683,585 | 888,024 | 9,992,999 |
| 일반은행 (시중+지방은행) | 716,151 | 700,579 | 904,705 | 1,021,947 |

(단위:억원)

/은행연합회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이판 등의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은행들이 외화 예·적금 상품에 여행 환전 이벤트를 더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 외화 예·적금 상품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4일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외화예수금 총합계는 102조 194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0조 4705억원)과 비교해

11.5% 증가했다. 시중은행은 99조 9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고, 지방은행은 2조 26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외화예수금이 증가한 이유는 우선 코로나19 위기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부진과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최근 수출 호조세 등이 예수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

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심리도 더해졌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4일 1081.0원에 거래됐던 달러는 지난달 30일 기준 1130원에 거래됐다. 달러당 49원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면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외화 예·적금 상품에 여행이벤트를 더한 상품을 출시하

고 있다. 코로나19 잔여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정부가 사이판과 괌,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투자목적의 고객이 아닌 추후 가능할 해외여행을 대비하는 고객까지 고객 폭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신한은행은 100달러 이상 환전하거나 ‘썸데이 외화적금’에 100달러 이상 입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을 지급한다. 썸데이외화적금은 입금 시 최대 90% 환율우대와 출금시 외화 현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해피라이프 여행스캐치 적금IV’를 출시했다. 해피라이프 여행스캐치 적금IV는 월 5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6개월 이상 3년이하로 가입 가능하다. 특히 해피라이프 여행스캐치 적금 IV는 가입 후 하나투어 지정 대리점 여행상품 이용 시 결제상품의 3% 캐시백을 지급하고, 주요통화 환전 시 최대 70%까지 환율 우대한다.

Sh수협은행은 ‘Sh외화레인지예금’ 상품 출시 1주년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Sh외화레인지예금은 달러 등 주요통화에 대해 외화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수시입출금식 외화MMDA상품이다. 특히 고객등급에 따라 최대 9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고, 거래환율 지정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환율로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년 IFRS17 도입… 보험 부채, 시가 평가 우리銀, 비대면 고객 전담관리 조직개편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부채규모 급증시 건전성 악화 방지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부채 측정시 원가를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 보험사의 부실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입한 재보험사 또한 부실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 해야한다.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 부채규모가 급증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00년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오는 2023년부터 IFRS17을 보험사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부채 측정

시 원가기준을 현재가치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측정할 때 이에 맞는 책임준비금(보험금, 환급금 지급액 등)을 적립하고 있다. 평가시점을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적립할 수 있게 해 IFRS17 도입시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가입한 재보험사 또한 부실예상시 미래 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해야 한다.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지금까지 재보험사는 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 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했다. 앞으로는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고, 재보험사 부실예상시 미래 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를 마련한다. K-ICS는 IFRS 17에 맞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 평가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행 위험기준 자기자본 지급여력비율(RBC)제도는 경제적, 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보험자본규제의 패러다임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K-ICS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K-ICS에는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WON컨시어지영업부’ 신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비대면 선호고객, 고객경험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먼저, 비대면 선호고객 전담관리를 위한 ‘WON컨시어지영업부’를 신설한다. 비대면 선호고객을 위한 맞춤형 밀착관리서비스인 WON컨시어지를 통해 전담직원이 고객과 1:1로 매칭되어 금융상담부터 상품추천, 상품가입까지 영업접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을 통해 단순업무의 AI 상담대체로 고객상담 업무가 효율화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별 최적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비대면 고객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자산가 고객의 비대면

자산관리상담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디지털PB팀과 비대면PB사업팀도 신설한다. 디지털PB팀에 자산관리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고객 개개인별 투자성향에 맞는 수준 높은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및 소비자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와 금융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전담 수행하는 소비자보호점검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선호고객의 고객경험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NH농협카드, 창립 60주년 기념 사연공모

우수 사연자에 상품권

NH농협카드는 농협 창립60주년을 기념해 사연 공모 이벤트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농협을 사랑해주는 고객들과 추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라며 “농협카드와 관련된 사연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응모방법은 NH농협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에 안내한 별도의 응모 페이지에 사연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선정된 우수 사연자 10명에게는 농산물상품권 3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최우수로 채택된 사연은 농협 창립60주년 기념 기획영상을 통해 소개하게 된다. 또 참가자 중 10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을 제공한다. 우수사연 당첨자는 오는 23일 사연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지난 60년 동안 농협과 함께했던 고객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사연을 공유하며 소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감동을 드리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교보생명

‘올인원 인증 서비스’ 개시

교보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접점 기반의 통합인증센터를 구축했다.

교보생명은 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올인원(all-in-one) 인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화된 인증 체계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통합인증센터란 본인 확인, 전자 서명 등의 인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인증 수단과 인증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구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문, 얼굴, 손바닥 등 신체 정보인 바이오,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PASS, 네이버, 토스 및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 서비스도 사용 가능하다.

교보생명 모바일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은 하나의 화면에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비대면 주담대 ‘우리 WON주택대출’

실행까지 모바일로 가능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바일로 가능한 우리WON뱅크 전용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WON주택대출’은 ▲주택구입 ▲대환대출 ▲생활안정 등 자금용도 구분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바일로 가능하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최대한도 5억원, 금리는 최저 연 2.74%(지난 2일 기준)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전자 등기를 통해 담보제공자가 영업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보유 주택수 확인을 위한 세대원 동의절차도 미성년자까지 확대 적용했다.

더불어 고객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주택종류에 따라 상품을



선택했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주택종류를 자동분류해 우리WON주택대출 한 가지 상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리 WON주택대출은 소득과 주택시세를 입력하면 3분안에 대출금리와 한도가 확인 가능하며, 금리우대 조건도 5개로 간소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대면 대출 대상을 확대해 영업점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